

로마서 묵상 38  
(3/4/2021, 목)

찬양: 382(432)(너 근심 걱정 말아라)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로마서 8:28-30

**말씀에 대한 이해**

앞 구절에서 믿는 성도들의 성화를 위한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말씀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 일관된 섭리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친다.

**말씀 속에 담겨 주신 메시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8 절 -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표현을 통하여, 이 말씀은 믿음을 바탕으로 영적인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임을 강조한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표현에는 그것을 이루는 주체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협력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의미가 녹아 있다.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자 진정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통하여 그리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는데, 그 목적의 성취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다. 이 때의 “선”은 무엇일까? 본문에서 말하는 “선”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한다. 성도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온갖 종류의 인생의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시어, 성도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것이다. 바울은 그러한 선함의 역사가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한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백성들을 이미 아시고 정하셨다고 말씀한다. 29 절 -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원받을 백성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불러 주신다. 그리고 그들을 “그 아들의 형상,”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그 모습대로 변화 받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받는 영광까지 그리스도와 같이 누리게 됨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아신 자들에게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의 은혜를 주신다. 30 절 -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 구원의 순서 혹은 단계를 보여준다. 그것은 ‘부르심(소명),’ ‘칭의,’ 그리고 ‘영화’이다. 이 세 단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며, 아무 공로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종말에 있을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화로움의 은혜를 입을 사람들이다.

이 세 단계의 구원의 역사 역시 28 절에서 언급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다른 방식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구원의 성취를 경험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28 절을 29-30 절과 연결하여 읽을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

선적으로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의미를 먼저 이해한 다음에, 본 구절의 의미를 좀더 확장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 적용해 볼 수도 있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다양한 종류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바울은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언급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구원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만이 받는 것이다.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하게 한다. 구원은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아울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결국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구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한다. 많은 경우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는 것만을 구하고 받으려고 하지, 나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고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사랑을 드리는 데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기도하는 성도는 먼저 주님과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 신실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성도들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으며 나 역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경험하는 다양한 삶의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성도는 고난 앞에 쉽게 좌절하지 않을 것이며,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신실함과 사랑이다. 주님의 신실함은 변함이 없으시다. 만약 나도 주를 향한 변함없는 신실함을 유지하며 주를 신뢰함으로 붙잡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오늘도 섭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2. 주의 백성들을 위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3.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기업을 오늘도 지켜 주시고, 환난 중에 문제를 해결하시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